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경영학과	이름	신xx
파견국가	일본	파견도시	오사카
파견대학	Hagoromo University of International Studies	파견기간	2018.09~2019.08
귀국여부	귀국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i>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i> 하고로모국제대학은 오사카 남쪽에 있는 작은 학교입니다. 규모는 유니토피아관보다 조금 큰 정도입니다. 분위기는 최하위권 대학이라 수업시간에도 시끄럽고, 일본어보다 베트남어, 중국어를 많이 들립니다. 일본인 학생도 있지만, 베트남 중국인 유학생이 70퍼센트인거 같습니다.
2018-2학기 수업	<i>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i> <i>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i> 導入ゼミナル2A- 마케팅 교수님이 수업이었고, 초반에는 마케팅기초를 공부합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제품을 골라 그 제품을 만든 제조사와 제품에 대해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합니다. 따로 시험은 없고, 1인 발표 뿐입니다. 발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企業會計1- 회계를 잘하면 추천합니다. 회계용어는 한국이랑 비슷합니다. 과제는 따로 없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시험은 오픈북이고, 교수님이 시험전에 뭐가 나올지 대강 알려주십니다. 企業會計3- 企業會計1와 마찬가지로 회계를 잘하면 추천합니다. 마찬가지로 중간, 기말이 따로 있고 과제는 없습니다 販売管理1- 실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항상 출장이 많아 수업을 자주 휴강합니다. 출장 때문에 수업을 일찍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격증을 따는 학생들만 뽑아서 수업을 해서 한달동안 휴강한 경우도 있습니다. 책은 프린트해서 만든 책인데

	일반 시중에서 파는 책가격이랑 맞먹는 가격입니다. 중간고사는 없고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문제는 책에 있는 그대로 출제합니다. 답도 책이랑 똑같습니다. 日本語基礎3- 토요일 아침 1교시입니다. 매우 비추천하지만, 개강전에 분반테스트를 보고 결과에 따라 들어야하기 때문에 테스트를 매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중간, 기말이 있고, 매주 카타카나 테스트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친절하시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유학생 수업이기 때문에 베트남인이 7-80퍼센트입니다. 日本語基礎4- 토요일 아침 2교시입니다. 매우 비추천합니다. 3과 세트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출석을 안하면 그날은 결석처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간, 기말이 있고, 회화수업이라 듣기와 말하기 위주의 수업입니다. 시험도 듣기와 외워서 발표와 읽을거리를 발표합니다. 3과 달리 4의 선생님은 성격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매주 일본어 시험이 있습니다. 히라가나와 한자를 쓰는데 히라가나를 조금이라도 형태가 이상하면 가차없이 틀립니다.
2019-1학기 수업	経営戰略論- 100명정도의 학생이 듣는 수업입니다. 쪽지시험과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과제도 하나정도 있고, 학생들이 워낙 수업을 안듣기 때문에 수업도중에 신문기사나 주제를 던져주고 자기 생각을 적으라고 할때도 있습니다. マーケティング1- 책 없이 교수님이 만든 PPT를 노트 받아 써야합니다. 시험은 오픈북이기 때문에 잘 받아써야합니다. 중간과 기말이 있고 과제는 없습니다. 이론수업 후 마지막에 항상 기사나 영상을 보고 전략 같은 것을 적어서 제출합니다. 일본의 마케팅사례를 배우기 때문에 흥미가 있었습니다. 導入ゼミナル1- 経営戰略論과 같은 교수님이라 수업의 진행은 같습니다. 책의 본문을 돌아가면서 소리내서 읽습니다. 가끔 신문이나 읽을거리를 보고 자신의 생각을 적어서 제출합니다. 중간기말은 없고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人的資源管理論- 중간기말이 없고,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준 종이에 수업내용을 적고 매시간마다 걷어가고 다음 수업시간에 나눠줍니다. 수업평가는 종이에 수업내용을 적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Web デザイン - 컴퓨터로 수업하고 html과 css를 수업합니다. 교수님이 그림을 잘 그리셔서 쉽게 설명해 주십니다. 처음 배우는 사람도 배우기 쉽습니다. 과제는 없고 시험은 기말고사만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i>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i> 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 매달 한번은 사인을 해야합니다.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은 전혀 없고, 5월에 신입생으로 들어온 유학생들에 붙어서 고베로 크루즈 여행가는게 전부입니다. 방학전에 방학 때 본인의 나라로 돌아갈 때 주의해야할 점이나 안내사항을 알려줍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i>현지 기후 및 유의점</i> 날씨는 한국이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겨울은 확실히 한국보다 덜 춥고, 여름은 한국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	<i>현지 안전 상황</i> 험한이나 지진을 걱정하실텐데, 저는 험한은 한번도 겪어본 적은 없고 지진은 한번 겪어본 적 있습니다.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 () 외부 숙소(o) 기타() 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게스트하우스원피스라는 곳에서 지냈습니다. 1인 1실이고, 방에는 침대와 책상과 불박이 벽장이 있습니다. 침대는 랜덤으로 간이침대이거나 원목침대였습니다. 세면장 샤워실 키친은 공용입니다. 키친이 공용이라 중국인들이 몰래 프라이팬이나 용기를 훔쳐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로 중국인과 대만인이 많습니다. 시끄럽습니다. 옆방에 중국인이 살았는데 친구한명을 데려오면 이어폰을 끼고 있는데도 시끄럽습니다. 그 중국인이 시끄러운 것도 있었지만, 방음이 전혀 안됩니다. 대신에 월4만2000엔에 냉장고 렌탈비 500엔만 내면 전기세와 수도세 등은 무료입니다. 가장 큰 장점입니다. 위치는 걸어서 5분거리에 큰 슈퍼와 드럭스토어가 있고, 6분정도의 거리에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가지로 후회했지만, 나중에 귀국할 때 즈음에 처리할 짐들이 많지 않아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식사	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o) 홈스테이 () 외부식당 (o) 직접 요리 (o) 기타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초반에는 밥을 밖에서 사 먹었고 학교에 있을 때는 학식을 이용했습니다. 사 먹는 밥이 물려서 같이 유학하는 한국인 유학생들과 만들어서 먹거나, 직접 요리해서 먹었습니다.
교통	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 통학을 할 때는 我孫子町역에서 鳳에서 갈아타고 東羽衣역에서 내려서 걸어갑니다. 3개월 정기권을 끊으면 14,980엔이라 항상 정기권을 끊고 다녔습니다. 난바나 우메다로 놀러갈 때는 あびこ역으로 30분이내로 갈 수 있습니다. 공항까지는 1시간정도 걸립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180,000원	
Fees	25,000원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데 건강검진료를 냅니다.
보험료	23,000원	국민보험비
숙소	430,000원	
식비	한달에30~40만원	유흥비불포함
교통비	20만원	3개월 정기권 160,000원+a
책값	50,000원	
기타1	통신비 24,000원	매달 요금이고 라인모바일을 사용했습니다.
기타2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같이 가는 한국인 유학생이 없거나, 이미 학교에서 유학하는 학생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알바를 할 경우에는 200만원정도를 가져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서 바로 알바를 신청해도 통지가 늦게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목돈을 필요합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일본으로 여행은 짧게 많이 와봤지만, 이렇게 장기체류는 처음이었습니다. 여행과 사는 것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고, 세상을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힘들었던 점은 역시 음식입니다. 일본의 음식들은 대부분 튀김류와 면류라 달거나 느끼하거나 짭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은 한국음식을 사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뒤로는 한국에서 조미료를 가져와서 직접 많이 해먹어서 향수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많을 걸 하지는 못했지만, 후회 없는 1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오코노미야끼



교토 블루보틀



에히메현 도고온천



카가와현 고토히라궁



벚꽃구경



이세신궁